

CSF 이슈분석



2017-51

「경제」

중국의 해외투자 관리 기조 변화와 시사점

중국

김동하 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 주요내용

- 2015년 하반기부터 중국정부가 지원·장려 해왔던 해외투자는 그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됨.
- 2016년 11월 28일, 중국 중앙정부 4개 부처는 공동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해외 투자 심사는 진실성 여부에 중점을 두겠다고 표명함.
- 최근 이러한 중국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는 외환보유고 감소, 위안화 평가절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트럼프 신정부 등장과 미국 금리인상, 위안화 국제화 등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해외투자를 둘러싼 거시 환경은 위축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향후 상당기간 중국의 대외투자는 감소될 전망이며, 그동안 중국투자를 적극 유치해왔던 우리 나라 지방자치 단체들은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됨.

1. 이슈 현황

■ 2015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함.

- 2015년 하반기부터 둔화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성장세가 최근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 외환 보유고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중국의 OFDI 기조 변화에 따른 중기적인 정책 전환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비금융 부문 OFDI는 2016년 1~2월간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72.8% 성장한 299.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동년 1~8월 이후에는 성장세가 전년 동기간 대비 53% 수준으로 둔화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2016.11.28) 중국 중앙정부 4대부처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OFDI 정책 기조 전환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공포함.
 - 2016년 11월 28일, 4대 중앙정부 부처(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는 공동기자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해외 투자는 지원하나, 투자의 진실성에 대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이에 대한 WSJ의 해석은 중국정부의 OFDI 정책 기조의 전환임.

- 4대 부처 간담회(2016.11.28)에 대한 WSJ의 해석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
 - 국무원이 조만간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임. 중국 기업의 해외 M&A규모가 100억 달러를 초과하거나 해외 부동산 인수 대상이 10억 달러 이상일 경우 인수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규제안의 핵심임. 중국기업이 핵심 사업 분야와 무관한 곳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도 제한이 가해질 것임. 외국 상장사 지분 10% 이하를 매수할 경우, 심사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임.
 - WSJ의 분석은 중국이 해외기업 인수합병과 투자에 대해 '지원'에서 관리감독 강화 등 '억제책'으로 선화하려는 배경에는 위안화 가치하락의 영향으로 자본유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근거함. 일부 중국기업들이 해외기업 인수를 내세우며, 사실상 국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번 OFDI 제한조치가 공산당 19차 당대회 개최시기인 2017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즉 금년 가을로 예정된 시진핑 2기 정부 출범 전까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해석임.

2. 원인과 분석

■ 2009년부터 중국정부는 OFDI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장려정책을 시행하였음.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성장모델의 전환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위안화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중국정부는 2009년부터 OFDI를 본격 지원·장려하기 시작했음.
 -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국무원은 <정부심사투자항목목록>을 수정하여,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요구되는 필수조건을 대폭 경감시켰음. 그 결과,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정부에 보고만하면 별도 심의절차 없이 OFDI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됨.
- 이러한 지원·장려 기조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지속되었음.
 - 2014~2015년간 역시 <정부심사투자항목목록>을 두 차례 수정하였고, 아울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 관리방법>, <해외투자 항목심사보고 관리방법>,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간략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거나 수정하여, 더욱 OFDI를 장려하였음.
 - 상기 문건의 공통점은 OFDI에 필요한 행정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데 있음.
 - 그 결과, 중국의 OFDI는 2015년에는 1456.7억 달러(금융 및 비금융 투자 포함)로 중국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바 있음.

■ 하지만 이러한 OFDI 장려 기조는 2015년 하반기부터 그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었음.

- 당시에는 명문화 된 규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우선 외환관리국에서 OFDI용 자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투자용 외환매입 시 제출서류가 추가되었음.
 -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투자액이 큰 OFDI기업은 신청서류 제출 전에 외환관리국에서 면담 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이 ‘면담’에서 투자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했음. 이는 이전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통해 OFDI의 심사권을 상업은행에 주었던 것을 다시 중앙정부(외환관리국)가 회수했다는 것을 의미함.
 - 그 결과, 2015년 하반기 이후 OFDI를 진행하려는 중국기업들은 이전보다 중앙정부나 상업은행의 승인 시기가 더 길어졌음.
- OFDI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표명된 것은 2016년 4월 13일자로 대외 공개된 <해외투자 항목심사보고 관리방법(의견 청구안)>임.

- 이는 2014년 5월자로 제정·실시되고 있는 기존 <해외투자 항목심사보고 관리방법>의 수정을 위해 수정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구하는 절차임. 동 의견청구 절차는 2016년 5월 13일자로 마감되었음.
-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 수정된 <해외투자 항목심사보고 관리방법>이 공포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
- 비록 공개된 동 ‘의견 청구안’의 기초 역시 OFDI의 간략화이나, 2016년 하반기부터 변화된 거시경제 변화(환율, 외환보유고)와 트럼프 신행정부 등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확정될 수정안은 전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의견 청구안’에 공개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음.
 - ‘제7조 중국 측 투자액 1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승인을 요구한다,’ 조항 삭제. (투자 한도 확대 및 인허가 간략화)
 - ‘제10조 중국 측 투자액 3억 달러 이상 M&A 혹 입찰 항목에 대해 국가 해외투자정책 항목에 부합한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심사한다,’ 조항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사규정 삭제’ (투자 인허가 간략화)
 - ‘제11조 지방 소재기업의 OFDI에 대한 지방정부 인허가 절차 생략’
 - ‘제12조 제출 서류 간소화’ (제출서류 중 은행용자 의향서 삭제)
 - ‘제16조 국무원 서류(심사의견) 제출 절차 간소화’
 - ‘제29조 서류 간소화’ (정보보고확인서 획득 의무 삭제)
 - ‘제32조 투자 인허가 범위 축소’ (이전 인허가 대상이었던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 삭제)
- 4개 중앙부처 공동 기자 간담회(‘16.11.28)에서는 이전에 자주 등장하던 ‘투자절차 간략화’ ‘정부부처 심사권한 축소’ 등의 키워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편이성과 리스크 예방의 결합’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실시’ 등과 같은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등장했음.
- 실제 4개 중앙부처 공동 간담회 이후, 각 부처는 일련의 정책을 공포·제정하여 OFDI 기조를 명확하게 전환시킴. 각 부처에서 추가로 공포·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환관리국(2016년 11월 29일)은 공식 SNS(위챗)를 통해 ‘향후 허위 대외투자 행위를 단속함’이라는 성명을 발표. 이후 외환관리국은 별도의 문건이나 공문 발표 없이 투자액 500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신청서 접수 전에 외환관리국에서 ‘대규모 투자 보고’를 진행하여 심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음. 동 심사에는 투자거래의 진실성, 완성도를 평가하고, 자체 기준을 통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은행이 투자관련 외환업무를 처리하도록 외환관리국이 동의를 해주고 있음.

- 상무부(2016년 12월 2일)는 대외투자합작 정보서비스시스템(OFDI 관리시스템)에 통지문을 게시함. 동 통지문에서는 OFDI에 대한 진실성 검사를 위해, <해외투자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기존 제출서류 외에도 ‘이사회 결의서’ ‘출자협약서’ ‘공인회계사 인증을 거친 재무제표’ ‘OFDI전 사전업무 처리현황 설명서(F/S. 투자금액출처, 투자환경 분석평가 포함)’ ‘CEO가 서명한 진실성 담보서’ 등을 추가 제출 요구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존 5건의 제출서류가 9건으로 늘어났음.
- 이후 추가로 상무부가 밝힌 규정을 보면, OFDI ‘진실성’ 규명에 중점을 두기 위해 기업이 OFDI 실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업내부 결정 절차(이사회 결의 등)를 밟았는가? 해외 입찰 시 투자주의 심사보고를 진행하였는가? OFDI시 타당성 보고서(F/S: Feasibility Study)를 작성하였는가? F/S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OFDI시 자금 출처는 타당하고 가능하가? 등을 평가기준으로 판단함.
- 인민은행(2016년 12월 28일)은 <금융기구 거액거래와 의심거래보고 관리방법>을 수정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거액 현금 거래 기준을 기존 20만 위안(약 3,400만원)에서 5만 위안(약 8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또한 동 ‘방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다국간(해외) 거액 거래 보고 기준 20만 위안 혹은 상당 외환액’을 신설함.

■ 이러한 중국의 OFDI 정책 기조 변화의 배경은 그동안 무분별했던 투자의 조정, 위안화 환율 및 외환보유고의 관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중국의 OFDI 정책 기조 변화 배경 중 첫 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OFDI 확대에 따른 실패 및 무산 사례 발생임.
- FT(2017.2.5)에 따르면, 2016년 무산된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가 약 750억 달러(약 85.4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중국정부의 외환 유출과 각종 해외 당국의 규제로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만 30건에 달하는 M&A가 취소됐음. 2016년에 무산된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가 2015년보다 7배 많은 것으로 집계함.
- 취소된 M&A 중 규모가 컸던 계약은 중국 안방보험의 미국 스타우드 호텔&리조트 인수 시도(140억 달러)였고, 이는 중국 당국에 의해 무산됐음. 2016년 2월에는 중국 푸싱인터내셔널과 관련된 2건의 M&A계약이 취소됐으며,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리소시스의 인수도 당국에 의해 이틀 만에 무산됐음.
- 미국에서는 10건(약 585억 달러)에 이르는 인수계약이 취소됐음. 2016년 중국 측 컨소시엄은 네덜란드 필립스의 자동차 조명과 LED부품을 취급하는 루미레즈를 30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지만,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이를 좌절시켰음. 2016년 2월, 차이나리소시스와 후아캐피털매니지먼트의 26억달러 규모 페어차일드 반도체 인수도 무산됨.

- 유럽에서는 총 20여건(약 163억 달러) 중국의 M&A가 무산됨. 독일 반도체장비업체 아이스트론(Aixtron)은 6.7억 유로에 회사를 중국 측에 넘기려 했지만 미국정부는 아이스트론의 고객 중에 미국 방산 업체들이 있다며 이를 차단함.
- 이들 중 많은 M&A가 중국정부에 의해서 불발로 끝난 것은 자본유출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중국정부 당국이 해외 M&A 승인심사와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우려가 자본의 해외유출을 급증시킨 배경임.
- OFDI 정책 기조 변화의 둘째 이유는 위안화 환율 변동에 있으며, 이는 최근 세계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중국의 외환보유고 축소를 야기했음.
- 중국은 2015년 8월 11일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고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주요 국제통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의 환율의 변화를 위안화 환율에 적용시키겠다고 선언했음.
- 인민은행은 별도의 매매기준율을 고시하고 상하 2% 내에서 일일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음. 반면 새로운 환율제도는 인민은행이 자의적으로 매매기준율을 고시하지 않고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을 매매기준율로 수용함. 따라서 인민은행이 복수통화 바스켓에 포함된 주요 외환(달러, 유로, 엔화)의 환율 변화를 위안화에 반영하려면 상하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야 함.
- 新제도 도입 후, 외환시장에서는 시차를 두고(달러·유로·엔 변화→ 위안화 변화) 주요 통화 환율 변화에 따른 위안화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게 되어, 투기적인 위안화 매도 및 달러 매입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 인민은행은 위안화 약세 시 균형 환율을 외환시장에서 형성하기 위해 보유 달러를 시장에서 매도하고 위안화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된 것임.
- 위안화 환율제도 변동에 따라 중국인들은 환테크에도 나서게 됨. 즉, 내국인이 주도하는 달러에 대한 투기적 매집과 외환보유액 유출이 발생했음. 중국은 개인의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환전 한도를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연간 1억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나서는 중국은 타인 한도 차용 등을 이용한 달러 사재기도 나타남.(금리 대비 CPI 상승률이 높아 달러 환테크 수요증대)
- 2015년 하반기 위안화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은 취득한 외화 환전을 지연하였고,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하였으며, 수입대금은 과다 환전하였음. 또 달러 강세를 우려한 중국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외화 채무를 조기상환함으로써, 그만큼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었음.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위안/달러 환율은 2016년 10월초 6.67위안에서 2016년 12월말 6.95위안으로 급등(위안화 가치하락)했음. 위안화 환율은 2015년 8월 새 환율제도 도입 후 1년 5개월 동안 명목환율 기준으로 약 14% 절하됐고,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반영한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는 약 7% 절하됐음.

□ OFDI 정책 기조 변화의 셋째 이유는 외환 보유고 감소에 있음.

- 2017년 1월, 외환보유고는 심리적 기준인 3조 달러 밑으로(2조 9,982억) 떨어졌음. 중국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2월 이후 6년 만임.
- 외환관리국 당국자가 밝힌 이유는 인민은행이 외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에 외화자금을 제공한 것을 3조 달러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
- 이밖에 춘절 연휴기간(1/27-31) 동안 국민들의 해외 관광·소비 급증과 기업 채무상환 및 결산 등의 재정업무가 늘어난 것 역시 계절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함.
- 트럼프 신정부 등장이후, 만약 중미 간에 무역 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면 중국은 수출길이 막혀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외환 보유액 역시 감소할 것임.
- 중국 무역흑자 중 대미 무역의 비중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대미 무역이 중요함.
- 2017년 2월, 중국 외환보유고는 69.2억 달러가 늘어 다시 3조 달러로 회복되었음.

표 1. 미 달러화/위안화 환율, 중국 외환 보유고 및 OFDI 추이

일시	위안화 환율 (1\$=위안)	보유 외환 (억달러)	비금융 OFDI (억달러)	전년동월비 증감율
2015.6	6.1136	36938.38	560	29.2%
7	6.1165	36513.10	635	20.8%
8	6.3893	35573.81	770	18.2%
9	6.3613	35141.20	873	16.5%
10	6.3495	35255.07	952.1	16.3%
11	6.3962	34382.84	1041.3	16%
12	6.4936	33303.62	1180.2	14.7%
2016.1	6.5516	32308.93	120.2	18.2%
2	6.5452	32023.21	299.2	72.8%
3	6.4612	32125.79	400.9	55.4%
4	6.4589	32196.68	600.8	71.8%
5	6.5790	31917.36	735.2	61.9%
6	6.6312	32051.62	888.6	58.7%
7	6.6511	32010.57	1027.5	61.8%
8	6.6908	31851.67	1180.6	53.3%
9	6.6778	31663.82	1342.2	53.7%
10	6.7641	31206.55	1459.6	53.3%
11	6.8865	30515.98	1617	55.3%
12	6.9370	30105.17	1701.1	44.1%
2017.1	6.8588	29982.04	77.3	-35.7%
2	6.8750	30051.24	-	-
3.8	6.9032	-	-	-

자료 : 인민은행, 상무부, 국가통계국 (2017.3.8.)

* 주: 환율은 매월말 기준. 비금융 OFDI는 연간 월누계 기준.

3. 전망과 시사점

■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환율의 시장화는 지속할 전망이다.

- 중국정부는 환율 신제도 도입(2015.8), IMF SDR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 편입(2016.11) 등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음. 따라서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며, 다른 수단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임.
 - 2017년 3월 5일,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정부공작보고)에서 지난 3년간 사용해온 ‘위안화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향후 환율의 시장화를 강조함.
 - WSJ은 이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추가 하락하더라도 용인할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함.
 - 과거 사례를 보면,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연간 위안화 변동 폭을 3% 내외로만 제한하겠다는 뜻임. 하지만 2015년 8월, 환율 신제도 도입 후 그해에만 달러화 대비 4.7% 하락, 2016년에도 6.6% 추가 하락함.
- 미 트럼프 행정부 등장, 미국 금리인상 등과 같은 외부 환경 역시, 위안화 가치 절하가 예상되어 중국기업들의 OFDI 동인(動因)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도 타이트해질 전망이다.
 -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되고, 자본유출도 한층 확대될 것임. 해외 투자은행들은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돼 2017년 1분기 말이면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 2017년 1월 4일,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6.9526위안으로 고시함. 이로써 위안화 가치는 2008년 5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바 있음.
 - 일반적으로 통화가치 약세는 수출에 도움이 되나, 하지만 급격한 통화가치 약세는 국가신인도 하락과 대규모 외자유출로 이어짐.
 - ‘위안화 약세→ 자금 유출→ 외환보유액 감소→ 위안화 약세’의 악순환이 우려됨.
- IMF의 외화보유 공식에 따라 추산(2016년 Data)시 중국의 최소 보유액은 2.8조 달러이며, 이를 한도로 중국정부는 OFDI 억제와 자금유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임.
 - 소시에테제네럴은 IMF의 권고 기준을 이용해 외환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을 2조 7500만 달러로 추정하는 바 있음.

- 실제 최근에 발표된 2017년 1월 기준 중국의 OFDI 실적(비금융 부문)을 보면, 77.3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35.7%나 줄어든 수준이며, 2016년 OFDI 월별 누계실적도 하반기는 전반기 대비 성장 폭이 축소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외 수단(OFDI 억제 등)으로 안정적인 외환보유고를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이상과 같이 분석한 것을 종합하면, 중국정부의 향후 OFDI 정책은 최소 미 트럼프 정부 기간 내내 '축소' 방향을 유지할 전망이며, 그동안 중국 자금을 유치해왔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이 요구됨.
 - 향후 신규 프로젝트 축소는 물론 진행 중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 이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중국정부 당국의 OFDI 규제에 기인하며, 이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위안화 환율과 외환보유고 관리의 어려움임.
 - 실제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 내 대규모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중단 및 중국 내 자금조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국내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제주도(2017.3.7)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 투자한 주요 외국기업(2016년 12월 기준)은 모두 24개로 15.6조억원에 달함. 이 가운데 79%인 19개가 중국·홍콩 국적의 중국계 자본임.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리조트, 호텔, 콘도 분양, 카지노 등에 중국 자본 투자가 집중돼 있음.
- 또한 중국정부의 개인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조치로 인해, 그동안 해외 진행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다양한 형태의 채널로 진행된 중국인(개인)으로부터의 투자(건설 물건에 대한 분양 등)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홍콩 자본의 람정제주개발은 중국인을 겨냥해 2016년 4월부터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내 콘도 450여 실에 대한 분양에 나섰으나, 중국인이 분양받은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오는 10월 제주신화월드 1차 개장을 앞뒀으나 차질이 우려되며, 2조원에 달하는 투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16년 1단계 콘도 분양(2014년 완공. 투자금 2천억 원)에 이어 외국계 영리병원 등 2단계 사업 중이지만 공정률 50%에서 공사대금 미송금으로 일부 공사가 중단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측은 '중국정부가 위안화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자금유출을 제한해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드 사태 이후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힘. CSF

출처

李夏萌, 安杰律师事务所, “真实性”至上: 评近期海外投资监管的变化, 36Kr. (2016.12.06)
 2月外汇储备重回“3万亿” 专家: 汇率政策取向未变, 每经网 (2017.3.7)
 余永定: 外储应用于战略物资和海外投资 而非干预汇率, 新浪财经 (2017.3.3)
 余永定: 无须害怕人民币贬值, 腾讯财经 (2017.3.4)
 政府工作报告人民币汇率措辞明显变化, 释放什么信号?, 中国证券报 (2017.3.7)
 徐远, 北京大学国家发展研究院金融学副教授, 澎湃研究所, 人民币汇率问题的八大误区 (2017.3.2)
 发改委、商务部、人民银行、外汇局四部门负责人答记者问, 央广网 (2016.11.28)
 지만수, 중국의 환율불안 및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2017.1.21)
 서울신문, 돈 싸들고 찾던 제주, 中투자 위축 불가피 (2017.3.7)
 연합뉴스, 한중 관계 '냉랭' 제주 투자 차이나머니 '전전긍긍' (2017.3.8)
 연합뉴스, 中, 기업 해외투자 제한할 듯...자본유출 억제 강화 (2016.11.28)
 주간무역, 중국 정부 자본통제 갈수록 심화 (2017.2.6)
 WSJ. China Issuing 'Strict Controls' on Overseas Investment (2016.11.26)
 FT, Overseas Chinese acquisitions worth \$75bn (2017.2.5)

💡 CSF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